

쫓아내지 못하고 쫓겨나고

삿 1:22-36

2021년 11월 3일(수)

1.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광야 1세대는 단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곧 요셉 가문의 지도자요, 갈렙은 유다지파 지도자입니다.

사사시대 가나안 남부 정복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가나안 북부 정복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어제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을 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가나안 북부를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22-26절은, 요셉 지파가 베엘 지역을 정복합니다.

본래 베엘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게 나눠준 기업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베엘 지역을 정복하는 겁니다.

요셉 지파가 베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성읍에서 한 가나안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베엘에 대한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 댓가로 그와 그의 가족은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칫,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라합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결국 그녀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반면, 베엘에서의 이 남자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얻는 댓가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 누구와도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셉 지파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베엘에 대한 정보제공을 댓가로 그의 목숨을 살려준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베엘이 정복 당한 후 생명을 얻게 된 그와 그의 가족이 헷 사람의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루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26절,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 곳의 이름이 되니라”

요셉 지파가 베엘 성읍은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루스’라는 또 하나의 정복할 가나안 성읍이 세워진 겁니다.

베엘을 정복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셔서 이뤄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순종이 루스라는 불순종의 열매를 낳은 겁니다.

2.

27절부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27절 하, “...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8절 하, “...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중, “...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 중, “...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하, “...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하, “...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중, “...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은 정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지는 않은 겁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불완전한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이 가나안 중부에 위치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나타나고,

가나안 북부에 위치한 스불론과 아셀, 납달리 지파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28절, 30절, 33절, 35절을 보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역을 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쫓아내지 않았으나 나름 차선책으로 대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역을 하게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거나 내쫓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들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 34:15-16,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초창기에 우상숭배의 싹을 잘라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싹을 잘라 내지 못한 겁니다.

사사시대를 넘어 왕국시대에 가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을 이루고,

나머지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룹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특징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결국 우상숭배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룹니다.

완전한 순종만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3.

34절은 단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기업으로 분배 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때문에 산지로 쫓겨나서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께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가나안의 가장 북부 지역인 라이스로 이동합니다(삿 18:27).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면서 그들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가끔 이스라엘 영토를 일컬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나라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을 의미하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 때문에 하나님께 기업으로 분배 받은 땅을 빼앗기고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긴 것입니다.

물론 그 땅을 다시 요셉 지파가 정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단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간 것은,

단지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힘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는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단 지파처럼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 나갑시다.

4.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이미 기업으로 주신 것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숭배라는 씨앗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상숭배라는 열매를 맺어서 비극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한 단 지파는 믿음이 약해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굳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순종이,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 되도록 기도합시다.